

美 오리건, 선불교·기독교 '대화의 장'

매년 2회 포트리엔서 개최, 겸손·관용으로 종교간 소통



교겐 칼슨 달마레인젠센터 선원장(우)과 폴 루이스 매처 멀트노머대 문화신학과 교수(좌)가 종교간 대화를 나누고 있다.

다문화 다종교 사회, 미국에서 종교간 벽을 허물기 위해 9년째 '불교와 기독교'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곳이 있다. 노스웨스트 뉴스(Northwest News) 지는 17일 "미국 오리건 포트리엔서 멀트노머(Multnomah) 대학에서 직관적인 불교도와 보수적인 기독교도 사이의 대화가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달마레인젠센터(Dharma Rain Zen Center)와 문화신학연구소(Institute for the Theology of Culture, Multnomah 대학)가 나서 매년 2차례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 대화의 장에는 스님과 신학자, 불교도와 기독교도 등 5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종교 및 사회제반 이슈를 토론 주제로 정하고 있다.

이 자리를 처음 제안한 사람은 달마레인젠센터의 교겐 칼슨(Kyogen Carlson) 선원장이었다.

"2005년 조지 부시와 존 케리 후보가 격돌한 대선에서 조지 부시가 재선되었을 때, 미국인 중에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이들이 적잖았다"고 설명한 노스웨스트 지는 교겐 칼슨(Kyogen Carlson) 스님의 말을 인용,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고, 새로운 변화를 갈

'종교·낙태·사형' 등 사회적 이슈·윤리문제 토론 상호 공격적이던 첫 만남 후 점차 서로 이해

구했던 보편적인 생각과는 다른 결과에 직면하자 스스로를 성찰할 자리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이때 교겐 칼슨 스님은 폴 루이스 매처 교수에게 '선불교도'들과 '복음주의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고, 그것이 단초가 되어 9년간의 대장정이 이어질 수 있었다. "달마레인젠센터 회원들과 처음

풀어내는 '말' 등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고, 너무 다른 서로의 모습에 서로가 놀랐다"고 덧붙였다.

선불교도와 복음주의자의 첫 대화는 그들의 수사학으로 접철했다. 두 종교간 장벽이 높았던 셈이다. 대화의 주제도 '종교' '낙태', '사형', '전쟁', '동성 결혼' 등, 사회적 이슈이면서 종교적 관점에 보아야 할 문제로만 선정했고, 질문의 방법도 "당신은 동성애자, 타종교인들이 지옥에 있다고 생각합니까?"와 같이 '도발적'이었다. 그러나 만남이 계속될수록 그 장벽은 점점 낮아졌다.

매처 교수는 "이러한 주제는 논쟁을 위한 게 아니다"며 "논의 과정에서 종교를 떠나 인간의 근원적인 진리에 다가가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칼슨 스님은 "두 종교의 대화는 '겸손'과 '관용'이라는 소통의 길을 만드는 과정이 되었다"며 "만남이 쌓여가면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었고, 그 영역에서 선불교도나 복음주의자라는 테두리를 벗어나 '종교인'으로서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를 세우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자는 뜻도 모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보수적인 복음주의의 방식으로 진보적인 선불교와 윤리 문제로 씨름을 한다는 게 스스로 놀랐다"(론 엘진가·Ron Elzinga·기독교), "신념에 찬 투쟁이 아닌 서로를 진정 이해하려는 노력이 바로 종교적 삶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크락 한센·Clark Hansen·선불교) 등의 말을 인용한, 노스웨스트 뉴스 지는 "보다 깊이 있는 토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임에 앞서 항상 '주제'를 설명하는 뉴스레터를 보냈던 것도 갈등만 있는 대화가 아닌 화해가 있는 대화로 나아가는 데 일조했다"며 "이는 스스로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에 앞서 먼저 의문점을 갖게 했고, 이는 관용과 소통이라는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단초가 되었다"고 풀이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휴 잭맨

티나 터너

해외스타, 불교로 제2의 삶 찾아

잭맨, 평정심으로 ... 배우 자질 다져

터너, 부처님 가피로 ... 결혼 피로연 열어

불교와 명상으로 제2의 삶을 찾는 스타들이 있다. 영화 '엑스맨'에서 울버린을 열연한 휴 잭맨과 인기 팝스타 티나 터너 등이 바로 그들이다.

허핑턴포스트(Huffington Post UK) 지에 따르면 휴 잭맨은 '명상은 일상에서 벗어나, 나의 참 모습을 보는 최고의 방법'이라며 "배우로서 몸을 다듬는 일에 소홀할 수 없는데, 단순한 다이어트 보다는 명상으로 신체 리듬을 가다듬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다. 마음의 평

온을 찾고 행복을 느끼는 데 명상은 최고의 방법이다"고 말했다.

그래미상을 8번이나 수상한 티나 터너도 부처님의 가피에 기대 제 2의 삶을 시작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얼마전 결혼한 티나 터너는 결혼식 피로연을 '불교식'으로 진행했다. 티나 터너는 "불교에는 특정한 리듬에 맞춰 노래 부르던, 무의식이 의식한데 의사소통을 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열렬한 불교 신자다.

오종욱 편집위원

티베트 불교 대학 첫 졸업생 배출

22명 생불 포함 150명 졸업...아이패드로 경전 공부

티베트 자치구 라싸 곡수현 네탕에 위치한 불교 종합 대학에서 7월 15일, 150명의 승려가 졸업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스님들은 아이패드를 이용해 경전을 공부하며 불교공부 외에도 TV를 시청하는 등 다양한 여가 생활도 즐겨왔다. 학교는 중국 정부가 티베트 민심 달리기 차원에서 1천 6백만 달러의 돈을 투자해 지난 2011년 개교했다.

주강 톱 단 케 첵(Zhukang Tubdankezhub) 티베트 불교 대학 학장은 "티베트 전통불교 교리와 현대적 교육을 결합한 커리큘럼에

유명 교수진을 초빙,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학교도 착공할 예정이며 불교도 설립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1960년 중국이 티베트를 무력으로 점령하기 전만 해도 티베트 여러 사원에는 승려들에게 불교를 전파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이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강제 진압 당시 이러한 사원들 대부분이 사라졌다. 그 후 티베트 불교는 네탕, 인도 등에서 계승되며 명맥을 유지해 왔다.

배현진 기자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세워진 티베트 불교학교, 어린이 때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거의 20년간 불교교육을 받으며 '천천히' 스님이 되어가는 티베트 전통 가풍과는 달리, 티베트 불교대학은 2년간의 경전 교육에만 집중한다.

日 성직자, 젊은 층과 소통하기 위해 록밴드 결성

기타는 스님이 보컬은 목사가

스님이 록음악을 한다? 마음잔치에서 불법한 어설픈 장기자랑이 아니다. 육중한 기타 리프를 현란하게 연주하는 사람은 요시노부 후지오카(Yoshinobu Fujioka) 스님. 3개월 전 다른 여섯 명의 승려들과 'Boxi'라는 밴드를 결성했다. 놀랍게도 밴드 보컬은 '목사님'이 맡았다. 특색 있는 구성 덕분에 사람들의 이목도 집중된 건 두말할 것 없다. 이제 막 '데뷔' 한 밴드지만 벌써 여러 차례 공연을 가졌다.

종교를 떠나 이들이 의기투합한 이유는 젊은 층과 소통하기 위해서다. 10대 젊은이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록음악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과 끊임없이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이 종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젊은 층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었고 그들이 음악을 들으며 행복해지길 바랐습니다." 보컬을 맡고 있는 카즈히로 세키노(Kazuhiro Sekino) 목사가 밴드 결성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평화와 조화의 메시지를 노래 속에 녹여낸다. 일상 속 명상에서 비롯된 통찰이 담겨있는 자작곡이다.

도쿄 인근의 사이타마현 이루마

시에 있는 효린지사에 있는 후지오카 스님은 "스님이 항상 조용해야 한다는 건 일종의 고정관념입니다. 스님들도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활발한 본성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다양한 본성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이는 선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라고 말한다.

성직자들의 이같은 일탈에 젊은 이들의 반응 또한 우호적이다. 공연을 보고난 한 소녀는 "그동안 스님이 낯설게만 느껴졌는데 기타를 치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됐다. 기대하지도 못했던 인간적인 면모를 본 것 같아서 인상적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현진 기자



음악이 아니면 어떤 세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기 힘들 것 같아 록밴드를 결성했다는 요시노부 후지오카 스님. 카즈히로 세키노 목사와 의기투합해 종교의 벽을 허물고 고리타분한 인상을 벗어던졌다.

육임CD프로그램
효 사 비 결

정확합니다.
당면사 / 일생사 / 성부단정이
확실합니다.

정가 600만원

고복자 효사
02) 738-8680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가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질식법
똥중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 소 식

당뇨·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 ~ 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 생명공학 ※대리점 모집중